

보도시점 2026. 9. 19.(토) **배포 시** 배포 2026. 9. 19.(토)

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소(牛) 농장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 확진

- 인천 강화 기존 발생 방역지역 내 예찰 검사과정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2두 확인
- 발생농장 출입 통제, 항원 양성 개체 가축 처분, 전국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

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‘중수본’)는 9월 19일(토) 인천 강화 소재한 소(牛) 농장(53마리 사육)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번 인천 강화 발생(확진일 : 9.16) 관련 방역지역(3km) 내에 위치하고, 금년 8월 감염항체(NSP)가 검출된 소 농장으로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 검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항원 양성축 2두를 확인하였다.

※ '26년 발생(총 13건) : 1~2월 3건(강화·고양), 7월 6건(예천), 9월 4건(예천·강화)

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·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·가축·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,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고 임상증상이 없어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2두에 대해 처분할 계획이다.

*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또는 항원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부분 가축 처분 실시

아울러, 발생지역인 강화군과 인접 김포시 소·염소 농장에 대해 일제접종을 9월 23일까지 조기에 실시하고, 광역방제기, 방역차 등 가용자원 33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·세척 등 특별관리한다.

또한,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, 9월 23일까지 운영되는 「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」에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추진한다.

* 축산차량은 내부(발판, 운전대 등) 및 외부(바퀴, 적재함 등) 일제 소독 추진

중수본은 “인천 강화군에서 9월에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정밀검사, 집중소독, 감염 항체(NSP) 관리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강조하고, “축산 농장은 외부인 출입통제, 누락 개체없는 백신접종, 농장 내·외부 소독,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서기관	이병용 (044-201-2532)

